

서구를 민주당 양향자·민생당 천정배 ‘호남대통령’ 공방

제21대 총선 광주지역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광주 서구를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후보와 민생당 천정배 후보, 정의당 유종천 후보가 ‘호남대통령’과 군공항 이전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뉴스1 광주전남본부와 무등일보, 광주 CBS, CMB광주방송, KCTV광주방송 공동 주최로 제21대 총선 광주 서구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지난 30일 오후 CMB광주 방송에서 열렸다.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뒤 설욕전에 나선 양 후보는 “천 후보가 호남대통령을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민주당의 후보인 ‘이낙연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얼굴을 가리고 들으면 (천 후보가) 민주당 후보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천 후보는 “(호남대통령 언급은) 다음 대선때 호남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며 “호남정치의 발전을 위해 경쟁체제가 필요하다. 민주당 단독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맞받아쳤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놓고도 책임론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천 후보는 “군공항 이전사업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데도 집권당인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대놓고 반대하고 있고 국방부 장관은 논치를 살피고 있다”며 “어떻게 여당 소속 단체장이 항명하고 장관이 직무유기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민주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양 후보는 “4년 전 천 후보가 공약했던 내용을, 지역 국회의원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를 후보자 신분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며 “민주당이 군공항 이전 특별 TF를 만들었다. 당선되면 협의체를 만들어 지자체장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정의당 유 후보는 “민주당이 모든 단체장과 의회를 독점



30일 오후 광주 서구 CMB광주방송에서 제21대 총선 광주 서구를 후보자 초청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후보, 민생당 천정배 후보, 정의당 유종천 후보. /뉴스1

양향자 “얼굴 가리고 들으면 민주당 후보”

천정배 “호남발전 위해 경쟁체제 필요해”

유종천 “민주당 1회용 비례정당 만들어”

하고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반도 군사시설 밀집도가 높다. 대구, 군산, 광주의 군공항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가 “1회용 비례정당을 만드는

데 민주당이 동참했다”며 선거법 개정에 대해 묻자, 양 후보는 “취지와는 다르게 선거법이 진행되고 있어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번 선거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답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 후보는 “국가와 광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영입한 경제전문가인 양향자를 선택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천 후보는 “호남 정치의 성과를 위해 마지막으로 출마한다. 호남대통령을 만들어 낙후와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대도약을 이루겠다”며 7선의 의지를 표출했다.

유 후보는 “싸움만 하는 국회를 바꾸겠다. 국민소환제 도입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각종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양극화를 해결하겠다”고 차별화했다.



제21대 총선 광주 북구갑 후보.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후보, 미래통합당 범기철 후보, 정의당 이승남 후보, 무소속 김경진 후보.

광주 북구갑, 민주당 조오섭-무소속 김경진 ‘혈투’ 조오섭, 민주당 지지세 업고 여당론 강조 김경진, 전국적 인지도 바탕으로 인물론 호소 낮은 인지도 극복·민주당 바람 저지 변수

제21대 총선 광주 북구갑 선거구는 5명이 출사표를 던졌으나 풀뿌리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후보와 재선 도전에 나서는 무소속 김경진 후보 간 양강구도가 형성되며 혈투를 벌이고 있다.

31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북구갑에는 민주당 조 후보와 미래통합당 범기철 후보, 정의당 이승남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박현두 후보, 무소속 김 후보 등 5명이 본선 레이스 주자로 확정됐다.

재선 광주시의원들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으로 정치적 기반을 닦아 온 민주당 조 후보는 쏠쏠한 인물론을 펼치며 민생당 후보의 성공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여당 후보로서 중앙당과 정부 부처 등에 풍부한 중앙 네트워크를 활용, 지역과 중앙을 잇는 소통창구로서 활약하겠다는 포부를 강조하고 있다.

광주지역 유일한 청년 후보로 조 후보의 경선 상대였던 정준호 예비후보가 패배를 인정하고 조 후보 선거캠프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원팀(One Team)’을 꾸린 것도 조직력 확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

주요 공약으로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시즌 2 추진, 광주역 도심공동화 문제 해결, 인공지능산업 사업비 1조원 규모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 ‘쓰개 요정’으로 전국적 인지도를 쌓은 무소속 김 후보는 검사 출신으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국회에서 미래창조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광주시의 역점사업인 인공지능 중심도시 조성에 혁혁한 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학 교수 271명은 “김 후보가 호남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통합을 이끌 참된 지도자”라며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힘을 실어줬다.

김 후보는 인공지능 수도 광주 건설, 광주역 일대 개발·활성화, 무등산·광주호 일대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북구갑은 광주지역 다른 선거구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데다 선거캠프가 원팀을 꾸려 골목골목 세포조직을 확장한 것도 조 후보에게 유리한 형국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선거운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변수로 남아 있다.

김 의원은 전국적인 인지도와 함께 그동안 다져 온 밑바닥 지지세도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분열할 당시 좌고우면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정치적 강단을 보여줬다.

지난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국면에서 주춧돌이 지역정서와 상반된 모습을 보인 것과 ‘민주당 바람’을 넘을 수 있는냐가 재선의 관건이다.

전남대에서 학생운동을 하다 제적된 정의당 이 후보는 민주노동당 광산구청장 후보,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 심상정 대통령 후보 광주선대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정치 역량을 쌓아왔다. /이광수 기자

소병철 후보 “순천 해룡면 되돌려오지 못하면 정치생명 끝”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사회적 약자 법적 보호 앞장”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순천·광양·곡성·구례갑 후보는 31일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소 후보는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법무검찰개혁을 기획한 사람으로 누구보다도 검찰을 잘 알고 있는 저에게 (당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소임을 요청했다”면서 출마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순천 해룡면 분구와 관련해 “해룡면을 되돌려오지 못한

다면 정치생명이 끝나는 것”이라면서 “해룡면을 되찾아오겠다”고 강조했다.

소 후보는 “주요공직에 수차례 거론만 되었던 이유는 저의 부족함때문이지만, 보수정권하에서 소위 전라도 출신 검사로 김대중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경력 등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회적 약자의 법적보호에 헌신하겠다”는 신념에 따라 대령로품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소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호남을 위해, 역사의 진전을 위해 순천의 든든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소 후보는 순천 출신으로 성동초, 순천중학교를 거쳐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후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대검 정보기획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전지검 검사장, 대구고검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검찰 퇴직 후 변호사의 길 대신 대학강단을 선택해 순천대와 농협대에서 후진양성에 힘써왔고 순천대에서는 무보수로 강단에 서었다. /이정현 기자



해양치유완도
Marine Healthcare Wando
해양치유산업의 중심지 완도!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THE CAPITAL OF THE CLEAN SEA WANDO

2021완도국제 해조류박람회
Wando International Seaweeds Exhibition

치유의 바다,
바닷말이 여는 희망의 미래
2021. 4. 23. ~ 5. 16. (24일간)
완도해변공원 일원